

명사칼럼

관악산 댐돌기



정옥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02-500-8370

내가 관악산을 치유 본 것은 1975년 8월 말로 기억된다. 그 여름의 끝자락 나는 복학 전차를 밟으려고 서울대학교에 가고 있었다.

전해인 1974년 봄 10여년의 전업주부생활 끝에 대학원에 들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대 문리대는 동숭동 대학로에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의 격절에도 불구하고 낯설지 않았다. 옛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특히 대학 4년 동안 보금자리 역할을 했던 중앙도서관이 변치 않은 모습으로 버티고 있었다. 더구나 해묵은 은행나무와 라일락의 보라꽃 무리들, 문리대의 명물이던 마로니에는 아름다운 추억의 벗님네들이었다.

낯을 많이 가리는 나는 문리대의 변함없는 모습에서 옛 학창시절을 되살리며 위로받았다. 내가 10년 후배들과 공부하게 되었다는 게 실감나지도 않았다. 겨우 새로 시작된 캠퍼스생활에 익숙해진 즈음 나는 한 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해야 했다. 가정사로 휴학해야겠다고 주변에 말하자 모두 '그럼 그렇지 내가 어떻게 계속 버틸 수 있겠느냐?'는 듯한 표정과 눈초리들,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막내 딸아이를 출산하고 몸조리를 하고 나니 1년이 후딱 지나갔다. 복학을 하려하니 학교가 관악산으로 이사했다. 나는 그때 성동구 송정동에 살고 있었다. 내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못했던 당시 서울의 동쪽 끝자락에 가깝던 집에서 서쪽 끝자락에 가깝던 서울대학교로 가는 길은 고달픈 길이 되리라는 것은 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2시간여 걸려 서울내 정문에 이르자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날따라 날이 흐리고 가끔 비가 흩뿌려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압권은 정문에 딱 서서 바라본 관악산의 모습이다. 그 순간을 30년이 지났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다. 물기를 머금은 암산 관악산은 기대한 검은 풀체로 사람을 짓누르듯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모습은 사나워 보였다. 나는 순간 무섭다고 느끼며 오싹 진율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관악산과의 인연은 그 후 30년 이상 이어졌다. 그곳에서 식사 박사하고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며 고락을 함께 하였다. 박정희정권이 학생들의 과열 시위를 막기 위하여 관악산 서북쪽 골에 붙여넣었다는 설이 있는

가 하면, 관악산엔 작은 들은 많아도 큰 마위가 없어서 서울대에서 작은 인물은 많이 나와도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느니 온갖 이야기가 떠돌았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80년대 진반 자유한 최후반 연기에 빨개진 눈을 비비며 골목대면서 강의를 진행하던 일이다. 그다음은 관악산이 서북쪽의 바람 끈이어서 겨울이면 찬바람이 뽕뽕 불어 몹시 추웠던 기억이다. 이사초기의 황량했던 캠퍼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모습을 잡아갔다. 가로수로 심은 은행나무들도 척박한 토질 때문에 성장이 디디었지만 그런대로 자라서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을 떨어뜨리며 세법 야무진 은행을 산출하였다. 그렇게 사는 삶이 그런대로 익숙해지자 정년이 되었다. 그러나 첫 내면 때문인지 관악산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고 정년으로 관악산과의 인연은 끝나는구나 싶었다.

2007년 8월 말에 정년할 때는 정말 년아갓듯 한 기분이었다. 교수생활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드디어 자유롭게 맘껏 행복한 여생을 구가하리라 다짐하며 만세를 불렀다. 요즘엔 여생을 남은 인생 여생(餘生)이라 하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 여생(麗生)이라 한다고 한다. 아무네도 매이지 않는 신비, 불기지사(不羈之士)가 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하여 고향인 춘천에 서재를 마련하고 책을 끌고 귀향하였다. 춘천의 진산인 봉의산(鳳儀山) 자락의 새개발 지구에 새로 지은, 내가 어려서 살던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서실의 이름은 문소재(聞韶齋)와 이요서실(二樂書室) 두 개를 지어 주변사람들의 여론을 들었다. 문소재는 평화의 소리를 듣는 서재라는 의미이다. 봉의산은 봉황이 춤춘다는 뜻의 산이다. 의(儀)자에 춤춘다는 뜻도 있다.

춘천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이다. 서울에서 가다 분지의 입구에 해당되는 남춘천 지점에서 바라보면 두 날개를 펼치며 날아오르는 듯한 새의

모습을 한 봉의산이 홀연히 나타난다. 그래서 봉황이 춤춘다고 하여 봉의산이라 이름 부쳤을 터이다. 그 봉의산을 뒤쪽에서 보면 영락없이 삽태기 같아 보인다.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봉의산이 삼태기를 닮아서 춘천에서 쌓은 재물은 반드시 춘천에 도로 쏟아 부어야 끝난다더라.'고 말씀하셨다.

어쨌건 봉황이 춤추기 위해서는 음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봉의산에 제사지내는 의식을 위하여 문소각(聞韶閣)이라는 건물을 지었다. 소(韶)자는 순임금의 음악을 뜻한다. 요순 시대는 평화의 시대이므로 그 시대의 음악은 평화의 음악인에 틀림없다. 문소각은 일제 강점기에 불타고 말았다. 나는 바로 그 문소각을 계승하여 문소재라는 이름을 생각해냈다. 온고이지신의 의미로도 좋았다. 또한 평화의 음악이야말로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요서실은 요산요수(樂山樂水), 산을 즐기고 강을 즐긴다는 뜻을 빌어 산과 강 두 가지를 즐긴다는 뜻이다. 내 서실은 언덕위에 있는 아파트 12층이어서 앞으로는 대룡산이 보이고 뒤로는 의암호가 보인다. 산과 물을 다 볼 수 있어서 좋다. 아침엔 대룡산에서 불끈 솟아오르는 해를 볼 수 있고 저녁이면 의암호건너 아득히 보이는 화악산너머로 해가 지는 광경을 즐길 수 있다. 봉의산 뒤쪽에 있던 정자이름이 바로 이요정이었다. 지금은 봉의정으로 바뀌었지만...

그런데 많은 이들이 문소재에 점수를 주었다. 경치를 즐기는 것보다 평화의 메시지를 높이 산 것이 아닐까 싶다. 나 역시도 문소재에 더 끌렸다. 위치도 이요정 보다는 문소각에 더 가깝다는 점도 작용하여 문소재로 하였다.

나는 문소재의 현판을 만들기 위해 컴퓨터로 세 글자를 뽑아 도안을 만들고 수를 놓았다. 수십 년만에 놓아보는 십자수가 전혀 서툴지 않아 내 스스로 놀랄 지경이었다. 표구를 하여 걸어놓으니 제법 그럴 듯하다.



그렇게 시작된 춘천에서의 생활은 행복하였다. 아침마다 봉의산 중턱에 있는 순의비(殉義碑) 광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세종호텔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집으로 오는 길은 옛 춘천의 바로 그 곧목길이어서 경이롭기까지 하였다. 몇 십 년 전의 거리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그 초라함까지도 정나웠다. 골목골목을 누비며 옛 추억을 되살렸고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그런데 작년 3월 초 대학원장의를 위하여 서울에 올라왔다가 뜻밖에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내 생애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 다 싶어 국사편찬위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공개롭게도 관악산을 끼고 보면 서울대학교의 정반대 편에 있다. 관악산 서북쪽에서 관악산 남서쪽으로 관악산을 정반대로 맴돌아 왔던 것이다.

서울대에서 근무할 때 이런 저런 일로 파천에 올 때는 서울대에서 보던 관악산과는 사뭇 다른 관악산의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우선 날카로움이 없어서 좋았다. 다음으로는 사람을 끌어안을 듯 넓은 품이 좋았다. 나아가 햇빛 가득한 양지라는 점은 더욱 좋았다. 파천에 와서 관악산을 본 후에야 비로소 서울대에서 본 첫인상이 눈 녹듯 사라지고 관악산은 햇빛 쏟아지는 푸근한 산이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 그런 관악산 남쪽에 와서 여생의 남은 힘을 쏟아 일하게 되었으니 관악산과의 또 하나의 인연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관악산 남쪽의 서쪽 자락에 위치해 있고 서향이지만 앞으로 작은 안산을 놓고 앉아 있어서 아늑하기 그지없다. 공기도 같은 파천에서도 아주 좋은 편이라 한다. 창문너머 계절의 변화를 하루하루 실감하게 하는 풍광도 큰 축복이다.

교육원로를 함께 끼고 앉은 여러 기관 중에서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특별한 존재이다.

KS와 ISO(국제표준)에 대한 홍보와 각종 신기술의 인증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소개를 하는 등 과학기술에 관한 내국민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겠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우리 역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책으로 발간하며 한국사 연구, 한국사의 보급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물론 문사천의 인문학체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사발전애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의 역사의식을 제고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라사랑을 일깨우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

19세기 말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사편찬위원회가 동도를 연구하는 기관이라면 기술표준원은 서기를 담당하는 역할분담이라 볼 수도 있으므로 상호 보완하는 의미가 된다. 관악산 아래 좋은 환경에 자리 잡은 두 기관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국가사회에 기여하면 비지않아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기술표준 2009.3